

靑국감 野 “무공천 한다더니 입진보” 공세...與 반발 소란

김정재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꿔”

노영민 “대통령 당 내부 활동 결정 입장 안 밝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無)공천 당헌’ 개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여당의 말바꾸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정당감사’ 말고 국정감사를 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대단한 정권이다”라며 “선거법도 마음대로 고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 무력화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

궤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무공천을 실시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라며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는데 문 대통령(당시 대표)과 조국 전 장관(당시 혁신위원)은 침묵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다. 왜 정당을 감사하고 그래”,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당 일을 왜 질문하냐고” 등 고성을 쏟아내며 소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도 “왜 야당 의원의 질문을 (여당이) 봉쇄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내가 정리되자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은 오거돈·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라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김 의원은 “또다시 선택적 침묵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날



김태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을 세웠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다”라며 “사실에 관계한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질문은 우리 당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에서 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는 대통령비서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뉴스**

판문점 견학 1년 만에 재개...이인영 “연락채널 복원하자”

돼지열병 발병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재개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신설...이인영 개소식 참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는 4일 판문점을 찾아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희망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판문점 내 남북 자유왕래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 기념사를 통해 “이 곳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열어놓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다시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 “지금은 응답하고 있지 않은 남북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의 통신이 복구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복원되고 재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남북의 경계를 한 걸음 넘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자유왕래에 합의했다”며 “함께 비무장화를 이뤄낸 만큼 판문점 공간 안에서라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이산가족의 절실함을 생각할 때 판문점에서 소규모 상봉이라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당장 어렵다면 화상상봉과 서신 교환 등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이산가족의 상봉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념사 말미에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이라고 부른 뒤 “이 길을 따라 더 큰 왕래로 갑시다.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 나갑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박정·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최종환 파주시장, 패트릭 고사 중립국감독위 스위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판문점 견학을 중지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이유로 재개가 지연됐다.

통일부는 그동안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단체뿐 아니라 개인·

가족 단위의 견학 신청을 허용하고, 견학 가능 연령을 만 10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낮췄다. 견학 신청은 종전에는 최소 60일 전에 이뤄져야 했지만 이제는 2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소식 이후에는 판문점 시범견학이 실시됐다. 일반 국민과 취재진, 주한 외교단 등으로 구성된 80명의 견학단은 자유의 집에서 출발해 군정위원회실(T2), 기념식수 장소, 도보다리, 장명기 상병 추모비 순으로 이동하며 판문점을 돌아봤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담한 뒤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던 자유의 집 회의실에는 당시 의자 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방은 견학 코스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시험견학단체에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걸었던 도보다리는 일부 구간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임시로 설치돼 많이 낙후됐고 홍수로 인한 지뢰 유실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엔군사령부는 통일부에 보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홍남기, 연말 개각서 제외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연초 개각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의 이번 공개 사의 표명으로 당정 간 누적된 갈등이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이 사표를 즉각 반려하면서 재신임한다는 사실을 대변인의 입을 빌려 공개했다는 것은, 당정 엇박자와 상관 없이 홍 부총리를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한국판 뉴딜 등 홍남기 체제에서 마련한 정책 완수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 재신임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경제팀이 잘 이끌었고 성과를 냈다는 점과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투자 관련 대주주 의견 강화 등 주요 경제 정책 방향성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재신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확인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가 일단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주요 경제 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당정 갈등이 발생하면서 당을 향한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